

碩士學位請求論文

얼굴形態에 따른 性格分類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任 尙 鎔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體 育 教 育 專 攻

高 忠 煥

1997年 8月

얼굴形態에 따른 性格分類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任 尙 鎔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體育教育專攻

提出者 高 忠 煥



高忠煥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7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吳 萬 元

審査委員

李 昌 俊

審査委員

柳 在 晉



얼굴形態에 따른 性格分類에 關한 研究

高 忠 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體育教育專攻

指導教授 任 尙 鎔

본 연구의 목적은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녀구분없이 348명으로 나이는 19세부터 23세까지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측정도구는 Cattell의 16PF 성격요인 질문지로 15개 요인 150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절차는 얼굴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3차원 동작분석기인 비디오를 이용하여 촬영된 얼굴을 화상에 비추어 각각의 얼굴에 대해 각 포인트마다 디지털화(Digitization)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질문지 점수에 의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얼굴에 대한 평균간의 차검증을 위해 다변량분석(MANOVA)을 하였으며 얼굴유형에 따른 성격 분류기준과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모든 자료처리를 위해 사용된 통계방법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사용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된 가설에 입각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1) 얼굴 형태에 따른 성격분류가 가능한가에 대한 결과는 Cattell의 16PF 성격 측정도구의 스텝점수에 의해 분석한 결과 계란형, 원형, 각형, 역삼각형, 사다리꼴형, 오각형의 6가지 얼굴 형태에 따른 성격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얼굴 형태가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따른 결과는 얼굴유형별 성격요인의 차검증을 통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격요인들간의 관계에 있어 일부 요인을 제외하고는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요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서양의 성격검사지에 의한 성격분류가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따른 결과는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얼굴 유형별 성격요인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서양의 성격분류가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적용이 가능한 결과를 보였다.
- 4) 서양의 성격 분석 도구에 의한 성격분류를 통해 검증을 한 결과 얼굴 형태에 따른 성격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양철학에 기인한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목 차

I.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目的	3
3. 研究의 制限點	3
II. 理論的 背景	4
1. 동양철학적 얼굴형태분류	4
1) 관상의 유래	4
2) 얼굴 형태별 성격 유형	5
2. 서양 철학적 성격분류	9
1) 성격의 개념 및 내용	9
2) 성격유형론과 특성론	9
3) 성격의 측정방법	14
4) 성격측정방법의 실제 : Cattell의 16PF	17
III. 研究方法	19
1. 研究對象	19
2. 測定道具	19
3. 實驗節次	20
4. 資料處理	21
IV. 研究結果 및 論議	22
1. 얼굴형태의 분류	22
2.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측정	22
3. 얼굴 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29
4. 성격 요인간의 상관관계	33
5. 얼굴 유형별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34
V. 結論 및 提言	41
參 考 文 獻	43
〈Abstract〉	45
〈 부 록 〉	47

표 목 차

(표-1) Cattell의 16 성격분류척도	14
(표-2) 연구대상의 유형	18
(표-3) 얼굴형태별 분류	21
(표-4) 얼굴 유형별 성격 측정	22
(표-5) 얼굴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29
(표-6) 얼굴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30
(표-7) 얼굴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31
(표-8)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	33
(표-9) 계란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34
(표-10) 원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35
(표-11) 각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36
(표-12) 역삼각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37
(표-13) 사다리꼴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38
(표-14) 오각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39

1.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현대사회는 더 이상 신체적 기형 특히 자신의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를 느끼는 시대가 아니다. 발달된 의학기술은 인간의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고 인간의 내부기관을 수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얼굴형과 골격마저 변화 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얼굴형이나 인상학 또는 관상학에서 말하는 신체의 많은 기관들 점, 선, 살, 각 등의 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하늘이 내려준 운명을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얼굴은 인간의 마음을 솔직하게 반영해 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상학에서의 기본적인 판단 이념이다(마의천, 1994). 얼굴이 다르다는 것은 각자 자기의 心魂의 그릇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심혼의 그릇에는 여러가지 인간이 해야 할 직분이 태어날 때부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각각 직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정현우, 1991). 心魂의 그릇 표현인 인간의 얼굴에는 숙명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뇌라고 할때 이 뇌를 감싸는 기능을 하는 것이 얼굴이다. 그래서 얼굴에는 뇌가 간직한 모든 사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원래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대뇌가 작용하는 기능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그림자를 뜯어고치더라도 대뇌라고 하는 본질(本質), 즉 인간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직분이나 성격도 당연히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정현우, 1991).

이처럼 관상학이나 인상학에서는 인간의 관상을 통해 성격을 파악하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응용하고, 실제로 사람의 됴됨이를 판단하고 예측하는 자료로 사용하여 왔다. 관상을 통한 연구방법이 동양적인 것으로 동양에서 발달하였다면 서양에서는 골상학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시대에서 부터 이미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상(人相)의 학문적 연구를 시도하였는데(정현우, 1991) 사람의 얼굴 모양과 동물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 그 유사점을 바

탕으로 성격을 파악하였다(마의천, 1994). 가령 사람의 얼굴이 사자와 비슷하게 생겼으면 용감하다든가, 사람의 코가 소의 코와 비슷하면 감각이 둔하다든가, 나귀와 인상이 비슷하면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판단한 것 등이다(정현우, 1991). 이후 스코트(Scott, J)가 점성과 인상을 연결시켜 천체의 특성 10개의 영향에 의한 얼굴 모양과 성격, 운명 등을 파악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Lionardo davan'ci)의 『인간의 얼굴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 코클레(Cokeler)가 쓴 『인상술 개요』, 안티투스(Antitus)가 쓴 『인상술』 등의 저술이 전해져온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얼굴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랫동안 연구되어져 왔다.

이후 현대과학이 발달해 옴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의 실험적 방법에 의해 인간의 성격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오늘날 성격 심리학의 형태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전해내려온 관상에 의한 성격파악의 문헌들은 모두 동양 철학적측면에 기초를 두고있으며, 이러한 분류기준에 대한 현대 과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증명한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는 이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서양에서의 많은 성격유형 분석법이 많은 시간과 많은 자료를 토대로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외, 과연 동양철학에 기인한 얼굴형태에 따라서 성격의 분류가 가능한지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이 결과 추후 동양철학에 기인한 관상학에 의한 성격분류를 위한 도구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研究目的

본 연구에서는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의 분류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 1) 얼굴 형태에 따른 성격분류가 가능한지를 파악한다.
- 2) 얼굴형태가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3) 서양의 성격검사지에 의한 성격분류가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적용되는지를 파악한다.
- 4)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한 후 얼굴형태에 의한 성격파악이 합리적인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후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를 위한 도구제작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에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1) 성격분류를 위한 도구를 제작할 때 일반화 및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표본을 최소한 수천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는 표준화도구 제작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체육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을 무작위 표본으로 가 정했다.

Ⅱ. 理論的 背景

1. 동양철학적 얼굴형태분류

1) 관상의 유래

관상학이란 고대 동양의 선비들이 피상적으로 관찰하여 심상적(心相的)으로 연구한 학문으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경험적 통계학인 동시에 그 역사 또한 깊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기에 미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상학은 단순히 점을 치거나 예언하는 등의 추상적인 근거에 의한다기 보다 수천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과학적이며 통계적인 경험적 자료에 의한 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정잡배가 논하는 점성술과는 근본적으로 그 流가 다르다(마의천, 1994). 본래 점성술의 발달이 관상학의 발달을 가져왔는데 중국의 동주(東周)시대 사람으로 숙복(叔服)이 관상학의 창시자이다. 숙복은 천문학과 점성술에 능통하였으며 숙복에 이어 고포자(姑布子)가 관상학의 代를 이어 공자의 얼굴만으로 후일 성인이 될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초(楚)에 이르러 당거(唐舉)가 이름을 떨쳐 사마천의 사기(史記)중 《채택범수열전 (蔡澤范睡列傳)》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후 주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하고 나서도 역사상 최악의 오명을 남긴 분서갱유(焚書坑儒)라는 참극하에서도 모든 서적이 불에 태워졌으나 의학서적과 관상서적만은 남겨져 오늘날에 이어져 온다.

우리나라에 관상학의 전래는 그 기원이 확실치 않으나 야사(野史)에 따르면 지금부터 1400년전 선덕여왕 때 당나라에 유학간 승려들이 불교의 포교를 위한 방편으로 달마대사의 상법을 배워 온 데서 유래한다. 고려말기의 무학대사나 혜증(惠增) 조선 초기의 《한씨보응록(韓氏報應錄)》이나 《대동기문(大東奇聞)》의 문전등에 관상가들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체계적으로 관상학을 기록하여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맥이 분명치 않았다. 또한 아쉬운 것은 외식(外飾)과 체면을 주장하던

유교의 전통사회 속에서 특히 특기를 함부로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어하는 풍조가 관상학의 발전을 저해 하였고 퇴보케하였다. 그러나 관상학이야말로 오랜 기간에 걸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통계학이며 더구나 오늘날의 관상학은 전래의 관상학에다 서양에서 연구 발전된 골상학을 곁들이고 또 역학(易學)을 도입시켜 발전해 왔다(정현우, 1991).

2) 얼굴 형태별 성격 유형

(1) 삼질론적 분류

인간은 얼굴이나 몸의 특징에서 그 성격을 세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천차만별이라는 얼굴이나 몸의 생김새를 세가지로 분류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무리한 것 같지만 아무리 복잡하고 여러가지 형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원래의 단순한 형으로 정리 분류하면 남·여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백준기, 1984). 인간의 얼굴 유형을 세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을 관상학적으로는 삼형질론(三形質論) 혹은 삼질론(三質論)이라 한다. 서양의 人相學에서 고안되었고 심리학에서도 사용되는 방법으로 삼형질이란 각형(角型) 혹은 근골질형(筋骨質.) 역삼각형, (혹은 心性質), 원형(혹은 榮養質)의 세가지이다. 또한 삼형질의 기본형을 바탕으로 2개 이상의 유형이 결합하는 변이형까지 포함하여 기본적인 6개 유형의 얼굴형과 그 성격을 살펴보겠다.

①각형 (角型: 筋骨質)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동이 모든일의 바탕이 된다. 이와같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실행력, 행동력, 생활력이 가장 왕성한 얼굴 모형이 각형이다. 각형인 사람은 뼈가 튀어나온 얼굴로써 하관이 튀어나왔으며 어깨 폭이 넓고 가슴 부분이 떡 벌어져 한눈에 봐도 균형잡힌 남성적 체격을 지니고 있다. 상체가 역삼각형으로 발달해 있으며 근육은 단단하다. 얼굴은 사각형으로 모가졌으며 광대뼈가 나와 앙상하고 살이없어 대체로 울퉁불퉁한 편이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눈에 띄며 턱 밑 부분은 U자로 넓게 퍼져 있다.

각형의 성격은 우물쭈물하는 망설임이 없고 무슨일이나 남보다 먼저 처리한다(백준기, 1984). 활동력이 있으며 원시적인 생명력이 강한 반면 정서면이 결핍되어 있고

무신경한 편이다(정현우, 1991). 또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7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워서 독재적이기도 하다(김성현, 1995). 그러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실천하는 실행가이며 근면성이 뛰어나다. 또한 명예심과 자존심이 강해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내는 의지형이다(박일주, 1996). 반면 융통성이나 타협성이 없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마의천, 1994).

② 역삼각형 (心性質)

매사에 적극적인 각형에 비해 실행력이 떨어지는 공상형(空相型)이라 할 수 있다. 직접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것을 고역이라 여기며 남성에게 있어 이 형에 속하는 비율이 전체의 1/3에 해당한다(정현우, 1991). 얼굴 몸집이 가늘고 연약한 느낌을 주며 어깨는 쳐져 있고 가슴도 늑골(肋骨)이 부각되어 있다. 의외로 척수는 굵고, 상체가 긴편이며 얼굴 윗부분은 넓으나 턱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이마는 비교적 넓어 코에서부터 턱으로 내려감에 따라 좁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역삼각형의 성격은 예민하여 사물에 대한 본질을 분석 연구한다거나 사고 사색하여 이론화하는 일에 능숙하다(박일주, 1996). 지각이 예민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사고력이 치밀하여 사물의 판단에 오차가 적고 과묵한 성격이다. 그러나 영감력이 발달한 반면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해 낙관적이어서 태만하기 쉽고, 예민성이 학문 연구나 진리탐구 등 긍정적인 일에 쏟아질 때는 남다른 성과를 올릴 수 있으나 자칫 길을 잘못 들면 교활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 쉽다(정현우, 1994). 이 유형의 성격은 특히 상대방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며, 맡은 일에 충실하나 임기응변이 부족하고 관대함이 결핍되어 있어 비판이나 낙관 등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마의천, 1994).

③ 둥근형 (圓形:榮養質)

둥근형(원형)은 각형과 역삼각형의 양극단 사이에 들어 있는 형이어서 양쪽의 성격을 공유하는 형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살집이 좋고 두꺼운 가슴에 굵은 목, 어디에도 모가없고 둥근맛을 보이며 부드럽다. 가슴과 어깨보다 배 부분에 살이 많고 배가 앞으로 나와 있으며 비교적 허리가 굵다. 대개의 경우 얼굴이 크며 턱과 귀, 눈도 둥근 편이고 눈꺼풀에 살이 많고 코와 입술도 두툼하다(박일주, 1996).

원형의 성격은 다소 동작이 둔해 보이는 감이 있지만 실행력이 있고, 밀고 당기는 적당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원형의 성격은 명랑, 쾌활하며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시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형이다. 융통성이 많아 여유가 있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반면에 한 곳에 집착하여 꾸준히 하는 집착력이 부족하고 쉽게 불타 오르고 쉽게 식어버려 변덕이 심하기도 하다. 또한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교재가 넓고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사는 반면 확고한 목표와 사상이 불확실하여 직업이 자주 바뀌기도 한다(박일주, 1996).

(2) 삼형질론의 응용

삼형질론에서의 3가지 기본형을 바탕으로 2개이상의 형이 평면적인 결합을 하여 변이형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변이형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장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있다(김성현, 1996).

① 장사각형(長四角型 : 角型의 변형)

각형에 역삼각형이 가세된 형이다. 살집이 표준인 정방형보다 적고 마른 형으로 역삼각형인 심성질(心性質)의 요소가 가세된 형으로 그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얼굴은 길고 가늘어 진다. 얼굴생김새가 가늘며 길게 됨에 따라 성격도 변화된다. 각형의 성격인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에서 지능형으로 옮겨간다. 역삼각형의 심형질로 옮겨감에 따라 기품이 나타나지만 점점 성격이 까다로워지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 그 까닭은 등근형의 영양질(營養質)형이 전혀 가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능과 의지를 겸비하여 남에게 지지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심을 잃기도 쉽다(김성현, 1995).

② 오각형(五角形 : 角型의 변형)

이 유형은 각형에 역삼각형이 끼어들어서 형성된 것인데 장사각형인 경우는 각형에 역삼각형이 들어있는 형태이고 오각형은 각형에 역삼각형이 아랫부분에 붙은 형태이다.

장사각형과 마찬가지로 각형에 비해 살집이 작고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을 주는 인상이며 역삼각형이 끼어드는 정도가 현저할수록 강해진다. 얼굴의 아랫부분만이 변

형이므로 본래 성격은 각형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역삼각형의 영향으로 연구심이 왕성한 반면 인내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③ 육각형(六角形 : 角型の 변형)

각형의 중앙에 다시 각형이 가로로 들어오게 되는 형으로 각형의 강조형이다. 얼굴에 각형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는 형으로 광대뼈가 돋보이고 관자놀이 아랫턱에도 살집이 적은 까닭에 전체적으로 육각형으로 보인다. 정열과 적극성이 강해져 표면으로 드러나고 폭발력도 넘쳐 남의 호감을 사는 형이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으나 지혜와 계획성이 부족하여 부지런한 면에 비해 얻는게 덜해 보인다(김성현, 1995). 또한 지나치게 단순한 면이 있다.

이 외의 평면 복합 형태로 타원형과 조롱박형 등도 찾아 볼 수 있다. 타원형은 원형의 성질에 근골질의 성질이 가미된 것으로 주로 등근맛이 나고 느슨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까다로운 면이 보이기도 한다. 표주박형은 원형의 변형으로 원형에 원형이 가미된 형으로 원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낸다.



2. 서양 철학적 성격분류

1) 성격의 개념 및 내용

성격에 대한 정의는 제각기 달라 여러 심리학자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개인의 성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흔히 character, temperament, individuality 등으로 혼용되어 쓰이는데 홀과 린제이(C.S Hall & Lindzey, 1957)는 “성격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Roger는 “근본적으로 현상적인 것이며 주로 설명적인 개념으로서 자아의 개념에 의존 한다고 하였다(Rogers, 1951).

Allport, G.W에 의하면 「personality란 개인 속에서 그 개인의 환경에 대한 독자적인 적응방법을 규정하는 정신신체계(精神身體系)의 力動的 體制」로 보고 있다(G. W. 1968).

Hilgard는 “환경에의 독자적 적응을 결정 지워주는 개인적 여러특질과 행동양식의 총합체”라 했다(E. R. 1983). 국내 학자인 정량은(鄭良殷, 1976)은 성격을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대인관계에서 비교적 일관성있는 독특한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의 특징적인 소질”이라 하였다(정량은, 1976).

성격이론은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심리적 조건이 어떻게 결합해 한 개인의 독립적 성격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이론으로 유형론과 (theory of typology) 특성론 (trait theory)으로 나눌 수 있다.

2) 성격유형론과 특성론

(1) 성격유형론

유형이란 G.Phahler에 의하면 “가장 보편적인 것에서 개별적인 것의 선상에 있는 중간점”이며, E.Spranger는 “보편개념의 구체화”로 파악하였다.

성격은 ‘하나(個)’의 통일태라는 의미에서 유일한것으로서의 ‘個’는 결국 도달하기 힘든 것이다. 결국 ‘個’는 어떤의미에서 ‘보편’과 관련시킴으로서 個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유형은 하나(個)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개념인 것이다(박아청).

1986).

유형론의 역사는 그리스시대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까지 소급된다. 그는 기원전 4세기무렵 엠펙트라스의 우주4원론에 대응하여 4가지 체액론을 제시 하였다.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체액을 혈액, 흑담즙, 황담즙과 점액으로 나누고 이에 대응되는 기질로는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정액질 4가지로 분류하였다. 18세기 철학자 Imanuel Kant (1724-1804)는 「인간학」이란 저서에서 다혈질(輕血), 우울질(重血), 담즙질(溫血), 점액질(冷血)로 나누었다. 이처럼 19세기 주로 유럽에서 계승되어온 성격유형론은 기본적으로 4기질형이었다(박아청, 1986).

가. Kretshmer의 기질 유형론

Kretshmer는 성격은 인간의 정동적, 의지적 반응의 가능성의 총체이고, 기질이란 개인의 생체내의 생리적 기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성격의 하위구조로 보았다. 즉 성격이란 인간행동의 다양한 표현의 전체를 의미하고, 기질은 그기초에 있는 생리적 요소를 포함한 속성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성격에는 후천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기질은 선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본질을 말한다.

Kretschmer는 「체격과 성격(Körperbau und Charakter, 1921)」에서 2기질 유형론을 발표하였다. 그는 일상정신의학에서 출발하여 그 대내인성 정신이라 생각되어 온 조울병과 우울병에 대해 양질환과 체격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 그것을 일반성격에까지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1936년 '전간'과의 친밀성을 가진 점액기질을 추가하여 현재 알려져 있는 3기질 유형론으로 발전시켰다. 그 3기질 유형이 순환기질, 분열기질, 점착기질이다.

① 순환기질(ayklothymie)

조울기질이라 하고 다음과 같은 성격특성이 있다.

(A) 사교적, 친절, 우정이 두텁다, 사람을 좋아한다.

(B) 명랑, 유우머 감각이 있다, 활발, 격렬하다

(C) 조용하다, 침착하다, 정중하고 부드럽다.

(A)는 순환기질의 기본특징이고, (B)는 조(躁)상태 (C)는 울(鬱)상태와 통하는 특징이다. (B)와 (C)는 상반 되는 경향이 있으나 순환기질의 사람에게서는 이 두가

지 요소가 여러 종류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순환기질에 포함되는 성격은 주로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인간으로 자기와 주위사람과의 대립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향유 하는 성격유형이다.

② 분열 기질(Schiezothymie)

내면이 그대로 외면에 나타나는 일이 많고,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람이 순환기질인 것에 비해 분열기질은 내면과 외면과의 유리가 크고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다. 이러한 분열기질의 성격 특성은 다음과 같다.

(A) 비교적 조용하다, 주의 깊다, 진지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B)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며, 민감, 신경질적이고, 흥분하기 쉽다. 자연과 서적을 가까이 한다.

(C) 순종적이며 사람을 좋아한다. 온화하고, 둔감 하기도 하다.

(A)는 분열기질의 기본적 특징으로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냉담하고 재미가 없으며 딱딱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B)는 정신의 과민성 (C)는 둔감성을 나타낸다. (B)와 (C)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갖고 있지만 민감성과 둔감성이 혼재되어 있는 점이 분열기질의 본질이다. 이를 요약해보면 이러한 기질에 속하는 사람은 순환기질과는 반대로 폐쇄적이고 주위 사람들과 선을 긋고 자기 세계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③ 점착기질 (Viskose)

순환기질이나 분열기질에 비해 덜 정리되어 있으나 이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하나의 일이나 상태에 고착하기 때문에 변화하거나 동요하는 일이 적고, 신중하고 질서를 좋아하며 융통성이 없다. 신경질적인 것이 없고 안정되어 있으나 세밀성이 부족하여 사고나 설명에 대해 이해를 잘하지 못한다. 끈기가 강하고 약속이나 규칙을 잘 준수한다. 타인에 대한 태도는 공손하나 때로는 격노하는 수도 있다.

Kretschmer의 3기질유형론은 순환기질과 분열기질, 점착기질로 나누었고 순환기질은 비만형, 분열기질은 세장형, 점착기질은 투사형과 관계 있음을 밝혔다.

나. Sheldon의 유형론

W.H.Sheldon은 인간의 행동에는 생물학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4,000명의 학생 사진에서 기본적인 3가지 체형을 추출하였다

- ① 내배엽형(endomorphy) : 소화계가 발달하고 둥글고 부드러운 비만형이나 근육의 발달은 좋지 않다. 먹고 즐기고, 태평스러운 성격을 보인다.
- ② 중배엽형(mesomorphy) : 골격이나 근육이 발달하였고 직선적으로 중량감이 있다. 운동과 모험을 좋아하며, 자기주장이 강한 태도를 보인다.
- ③ 외배엽형(ectomorphy) : 신경계, 감각기관이 발달하고 키가 크나 빈약하다. 행동과 태도의 신중성을 보이고 감정을 억제하며, 사교를 싫어하는 성격을 보인다.

Kretschmer의 이론이 정신질환자를 기점으로 연역적인 조사를 한 것에 비해 Sheldon은 일반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귀납적으로 이론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다. Spranger의 유형론

E.Spranger는 기본적인 생활영역을 6가지 분류하고 이들 중 어느 분야에 가장 흥미나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6개의 유형을 설정하였다.

- ① 이론형-사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인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 ② 경제형-모든 점에서 경제성, 실용성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둔다.
- ③ 심미형-현실생활에 관심이 낮고 예술등 아름다운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 ④ 종교형-신을 믿으며 종교적인 체험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
- ⑤ 권력형-항상 권력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일에 가치를 둔다.

라. Jung의 심리학적 유형론

심리적 유형론의 성격은 체격이나 체질과는 관계가 없고 혹은 있더라도 직접 연관 지을 필요없이 심리적 특징만으로 몇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다. 심리적 유형은 각 성격유형이 외형적 특징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닌 성격의 구조나 역

동성 까지 보고자 하는데 있다.

Carl J. Jung은 인간의 성격을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구분, 내향적인 사람은 주의나 관심을 자신의 내부에 두고, 주관적 요인이 행동을 지배하여 외계에 대한 관심이 소극적 경향을 지니며, 외향적인 사람은 주의나 관심을 주로 환경이나 외부사물, 사람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흥미가 집중된 행동을 보인다. 이와 같이 외향적, 내향적인 태도의 경향은 한 성격안에 동시에 존재하나 그 중 하나가 우세하게 의식되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열세하여 하위에 있거나 무의식이 된다. Eysenck는 신경증적 경향, 외향성 대 내향성, 정신병적 경향의 3차원으로 분석, 성격유형이란 특성이 행동경향들이나 행동들의 집합과 같이 상관성을 지닌 특성들의 집합이라 정의했다(최용상, 1994).

이외에도 인지양식과 성격과의 관계를 제시한 H.A.Witkin의 장의존형 - 장독립형, N.Kang의 인지적 숙고성 - 충동성, 삶의 방식(Ways of life)에 따라 디오니소스형, 프로메테우스형 및 부타형의 통합 정도를 구해 통합형과 비통합형(또는 파괴형)은 양극으로 5가지로 나눈 E.R. Jaensch의 유형론적 접근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론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성격을 소수의 유형으로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중간형은 무시되어 버린다는 점, 둘째, 종래의 유형론의 대부분이 성격은 靜能的인 것으로 보아 성격형성에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 요인이 경시되기 쉽다는 점 등이다(박아청, 1986).

(2) 특성론

① 특성이론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특성이론은 개인을 각기 다양한 성격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가정하고 성격의 보다 공통적인 여러 특성을 발견하고 그러한 특성을 가진 정도에 비추어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Allport, Cattell 및 Guilford와 Thurston의 이론이 있다.

Allport 와 Odbert(1936)는 개인 행동특성에 대한 3000여개의 영어 단어 목록을 작성하여 긴 목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개의 중요한 특성을 찾아내었다. 친절한-적개적, 적극적-소극적, 사교적-철회적, 정서 안정적-신경증적, 창의적-고정관념적 등이다(고영희, 1990). Cattell은 성격특성을 성격 전체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

는 20개의 성격 공간인 표면특성(Surface trait)과 이 표면특성의 기저에서 여러개의 비슷한 성격 공간역이 모여있는 인성의 근저에서 참다운 구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12개의 근원특성으로 나누었고, 다시 이것을 개인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는 환경형성특성과 유전적 영향을 나타내는 생득적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Cattell은 정상인의 성격특성요인을 표와 같은 16개의 기본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그 특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는데 그것이 곧 Cattell 성격검사이다(이현주, 1989).

(표-1) Cattell의 16 성격분류척도

		대표적 특성				대표적 특징	
(1)	A	비 사 교 적	사 교 적	(9)	L	신 퇴 의 아	
(2)	B	비 지 적	지 적	(10)	M	실 천 상 상	
(3)	C	정서적불안정	정서적안정	(11)	N	심 술 없 음	심술긋음
(4)	E	맹 종	자기 주장	(12)	Q	자 기 만 족	타인이해
(5)	F	비 관 적	낙 관 적	(13)	Q1	보 수 적	실험적
(6)	G	사 리 사 욕	양 심	(14)	Q2	집 단 의 존	자기만족
(7)	H	부 끄 리 움	모 험	(15)	Q3	자기통제미숙	자기통제
(8)	I	강 인 성	유 연 성	(16)	Q4	이 완 성	긴 장 성



3) 성격의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성격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성격측정 방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 배경적 성격이론이나 패러다임과 결부시켜 측정방법과 관련된 네가지 이론적 접근(심리역동적, 기질적, 현상학적, 학습적)에 대한 상식적 내용만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① 심리역동적 접근과 측정방법

심리역동적 접근에서 성격측정은 개인의 무의식 과정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자주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Rorschach Inkblot 검사 : 대칭적인 잉크 얼룩무늬로 구성된 열개의 카드를 차례로 보여주고 피험자에게 무엇처럼 보이는지를 물어 간접적으로 피험자의 성격을 측정(Rorschach, 1921)
- 주제통각 검사(Themayic Apperception Test) : 그림이 그려진 31개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을 한 장씩 보여주며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는 일종의 상상력 검사(Murray, 1943)
- 기타 문장 완성이나 그림 검사 등.

② 기질적 접근과 측정방법

스포츠와 일반 성격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는 특질 혹은 기질적 측정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다면적 성격검사(MMPI) : 다양한 정신병적 징후를 식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우울, 망상 등 10개의 임상적 척도를 포함하고 있음.(Hathaway & Mckinley, 1943)
- 16요인 성격검사(16 PF) : 요인분석 절차를 통해 밝혀진 16개의 성격 특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스포츠 성격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됨 (Cattell, 1946)
- Eysenck 성격검사(EPI) : 정서적 안정성(신경증)과 내·외향성의 성격 차원을 측정하며, 정신과 환자를 위한 임상용으로 개발됨(Eysenck, 1975)
- 상태-특질 불안검사(STAI) : 성격 연구의 상호작용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다양한 성격 특성 중 불안 특성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됨(Spielberger 등, 1970)
- 표명 불안척도(MAS) : 시험이나 검사에 대한 임상불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됨 (Taylor, 1953)
- 기분상태 검사(POMS) : 정신병 환자를 대상으로 긴장, 우울, 분노, 활기, 피로, 혼란의 여섯가지 주관적인 기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됨 (McNair, Lorr & Droppleman, 1981)
- 운동동기 검사(AMI) : 선수의 성공과 관련된 11개(추동, 공격성, 결단성, 죄의식, 리더쉽, 자신감, 정서통제, 투지, 코치능력 등)의 성격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해 개발된 최초의 스포츠 전문척도(Tutko, Lyon, & Ogilvie, 1969).

- 스포츠 경쟁불안 검사(SCAT) : 운동선수의 경쟁에 대한 특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됨(Martens., 1976)
- 경쟁 상태불안 검사 -2(CSAI-2) : 운동선수의 경쟁에 대한 상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지적 불안, 신체적 불안, 자신감의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됨(Martens. 등, 1990)

③ 현상학적 접근과 측정방법

스포츠 성격연구에서 현상학적 특히 인지이론에 바탕을 둔 다차원적 인지 측정 기법들이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주의유형 검사(TAIS) : 개인의 주의와 대인관계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17개 차원에 대한 144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 그러나 스포츠 성격 연구에서는 6개 차원에 대한 12개 문항의 간편형 척도가 많이 사용됨(Nideffer, 1976).
- 내적동기 척도(IMI) : 과제에 대한 내적동기 수준을 인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흥미-재미, 지각된 유능성, 노력, 억압-긴장의 4개 차원에 대한 18개 문항으로 구성(Ryan, 1982)
- 원인차원 척도(CDS) : 성취 결과에 대한 개인의 인과적 추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내·외적 인과성, 안정성, 통제가능성의 3개 차원에 대한 12문항으로 구성(Russell, 1982)
- 스포츠 심리적기술 척도(PSIS) : 우수 선수들의 상대적 성격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의집중력, 불안조절, 자신감, 정신적 준비, 동기수준, 팀목표 성향의 6개 차원에 대한 45개 문항으로 구성(Mahoney, Gabriel & Perkin, 1987)
- 내·외적 동기척도(IEMS) : 청소년 스포츠 참가자들의 동기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전성, 호기심, 숙련지향성, 자결성, 비판성의 5개 차원에 대한 30개의 문항으로 구성(Weiss, Bredemeier & Shewchuk, 1985)
- 신체적 자기지각 프로파일(PSPP) : 자기 신체의 유능성이나 존중감에 대한

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스포츠 유능성, 신체 매력, 근력, 신체적 상태의 4개 차원에 대한 24개의 문항으로 구성(Fox & Corbin, 1989)

④ 학습론적 접근과 측정방법

스포츠 성격 연구에서 자주 활용된 사회학습 이론에 기초한 성격특성의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내·외 통제 소재 척도(IELCS) :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 역량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적, 외적 통제 차원에 대한 26개의 문항으로 구성(Rotter, 1996).
- 성역할 측정목록(BSRI) : 개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차원에 대한 60개의 문항으로 구성(Bem, 1974).
- 신체적 자기효능감 척도(PSES) : 개인의 자기 신체에 대한 유능성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각된 신체능력과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의 2개 차원에 대한 22개 문항으로 구성(Rycknam, Robbins, Thornton, & Cantrell, 1982).

4) 성격측정방법의 실제 : Cattell의 16PF

앞에서 간단히 제시한 바와 같이 Cattell(1949)의 16PF는 특질론적 성격연구에서 개발된 검사들 중 가장 오랜 연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 성격 요인 검사 중의 하나이다. Cattell은 이 검사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간의 성격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무려 18,000개의 형용사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6개의 성격 특질을 측정하는 180개의 문항을 선정했다(LeUnes & Nation, 1996). 16PF는 Cattell이 주장하듯이 그 요인의 수가 일차 요인만 16개에 달하며 거의 모든 성격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어 임상 장면 뿐만 아니라 상담, 교육, 산업, 스포츠장면에서 일반인의 성격 이해에도 결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규, 1990).

16PF는 스포츠 성격 연구에서도 Heusner(1952)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비록 16PF를 사용한 스포츠 성격 연구의 결과들이 통계적 처치나 표집의 문제, 문화적 비일괄성, 해석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으나 스포츠심리학에서 가장 인기있던 심리측정적 도구로서 최근 16PF는 185문항으로 5차 개정판이 발표되어 새로운 주목을 받고있다(WPS 1995-1996 catalog).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Cattell의 16PF는 염태호와 김정규 (1990)에 의해 표준화되어 임상, 산업, 학교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염태호 등이 제작한 한국형 16PF를 사용하였다. 단 효율적 실습을 위해 수학적 채점이 요구되는 지능 요인과 관련된 15개의 문항을 제외한 15개 요인의 150개 문항만을 다루었다.



Ⅲ. 研究方法

1. 研究對象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대학 교양체육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표본수는 남녀 구분없이 34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연령층은 성격 및 체형의 특성이 이미 완성단계에 접어든 19세에서 23세로 하였다. 또한 대상의 생활환경 및 지역을 무시하였고, 운동참여 유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표집된 대상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2) 연구대상의 유형

구분	계란형	원형	사각형	역삼각형	사다리꼴형	오각형	계
인원수	69	57	50	72	44	56	348

2. 測定道具



1) 얼굴형태에 따른 변인설정 및 용어정의

얼굴유형에 따른 성격분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변인으로서 첫째, 종속변인은 Cattell의 16PF의 한국실정에 변형한 성격유형검사척도의 15개 요인으로서 요인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특성으로서 온정성, 강한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강한도덕성, 대담성, 민감성, 불신감, 죄책감, 진보성, 자기충족성, 강한통제력, 불안감, 사변성, 실리성 등의 15개를 둘째, 독립변인으로서 삼질론과 삼형질론을 결합하여 연구자의 임의대로 계란형, 원형, 역삼각형, 사다리꼴형, 사각형, 및 5각형의 총 6개형을 선정하였다.

(1) 계란형 : 얼굴의 형태가 각이 거의없고, 계란형에 가까운 형

- (2) 원형 : 얼굴의 형태가 각이 거의없고 정원형에 가까운 형
- (3) 역삼각형 : 얼굴의 형태가 턱을 중심으로 거의 역삼각형에 가까운 형
- (4) 사다리꼴형 : 얼굴의 형태가 상위부분이 더 좁고, 하위부분 더 넓은 사다리꼴 형
- (5) 사각형 : 얼굴의 형태가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
- (6) 5각형 : 사다리꼴에서 하위부분에 역삼각형에 가까운 형

2) Cattell의 16PF 성격측정도구

Cattell(1949)의 16PF는 특질론적 성격연구검사도구로서 인간의 성격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무려 18,000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었고 최종적으로 16개(180문항)의 성격 특질을 측정 하는 180개의 문항으로 이의 용도는 모든 성격의 범주를 포함하며, 임상, 상담, 교육, 산업, 스포츠장면에서 일반인의 성격 이해에도 결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정규, 1990). 16PF는 스포츠 성격 연구에 Heusner(1952)가 처음 활용한 이래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Cattell의 16PF는 염태호와 김정규(1990)에 의해 한국형에 적합 하도록 변형한 후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을 입증한후 표준화되어 임상, 산업, 학교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수리적 채점 방식이 요구되는 지능 요인과 관련된 15개(1개 척도)의 문 항을 제외한 15개척도의 15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5개 성격측정 요인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특성으로서 온정성, 강한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강한도덕성, 대담성, 민감성, 불신감, 죄책감, 진보성, 자기충족성, 강한통제력, 불안감, 사변성, 실리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연구대상자가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인지하는 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①-⑤번까지 선택하게끔 Likert방식으로 구성하였다.

3. 實驗節次

본 연구의 실험과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 하나는 Cattell의

16PF의 한국실정에 맞게 변형한 성격유형검사척도의 검사지로서 각 문항에 답하기전 충분한 사전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게 한 뒤 각 문항에 대해 답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둘째 6가지 얼굴형태에 대한 성격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각 개인마다 이름과 고유번호를 지정한 후 벽면에 직립자세로 서게 한 뒤 카메라로 정면에서 얼굴형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이 때 얼굴의 윤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머리칼을 촬영이전에 정리하게 하고, 카메라의 줌은 얼굴만을 포착할 수 있게 하므로서 더욱 쉽게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성격검사지와 촬영을 완료한 연구대상간의 일치율을 위해 고유번호를 동시에 화면에 나오게하고, 이를 기준으로 질문지에 답한 고유번호와 일치시키므로서 동일인을 확인하였다.

연구변인 설정에 따라서 얼굴의 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3차원 동작분석기를 이용하여 촬영된 비디오를 화상에 비추어 각각의 얼굴에 대해 각 포인트마다 디지털화(digitization)를 하므로서 분류가 가능했다.

이 때 디지털화 포인트는 ① 이마의 양쪽 끝부분 2개점, ② 양쪽 광대뼈 2부분, ③ 양쪽 하악골 후돌기부분, ④ 턱부분의 순으로 매 대상마다 6개의 포인트에 대해 디지털화한 후 나온 11개쌍의 X, Y좌표를 토대로 얼굴의 각도를 분석하여 용어정의 방법에 따라서 얼굴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4. 資料處理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게 실험결과 나온 자료를 토대로 Cattell의 16PF의 성격분류와 관상학에 따른 얼굴유형을 분류한 뒤 얼굴유형에 따라서 Cattell의 16PF의 성격분류에 대한 점수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유형에 따른 차검정을 위해서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얼굴유형에 따라서 Cattell의 16PF의 성격분류기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모든 자료 처리를 위해 사용한 통계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사용하였다.

IV. 研究結果 및 論議

1. 얼굴형태의 분류

본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총 348명으로 남자 273명, 여자 75명으로 얼굴형태별 분류를 실시한 결과 계란형의 유형은 남자 45명, 여자 24명, 원형의 유형은 남자 40명, 여자 17명, 사각형의 유형은 남자 42명, 여자 8명, 역삼각형의 유형은 남자 61명, 여자 11명, 사다리꼴형의 유형은 남자 36명, 여자 8명, 오각형의 유형은 남자 49명, 여자 7명의 순으로 나타난 바

얼굴형태별 분류는 (표-3)과 같다.

(표-3) 얼굴형태별 분류

구 분	계란형		원형		사각형		역삼각형		사다리꼴형		오각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원수	45	24	40	17	42	8	61	11	36	8	49	7	273	75
계	69		57		50		72		44		56		348	

2.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측정

얼굴 형태에 따른 성격유형간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스텐 점수의 값을 평균하여 비교하였는데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 측정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얼굴 유형별 성격 측정

	계란형	원형	각형	역삼각형	사다리꼴형	오각형
온정성, 냉정성	*** 9	*** 9	** 3	*** 2	** 3	** 8
강한자아강도, 약한자아강도	* 4	** 3	***10	*** 2	*** 9	* 7
지배성, 복종성	5	*** 2	*** 9	** 8	*** 2	5
정열적, 신중성	* 4	*** 9	* 7	* 4	5	*** 9
강한도덕성, 약한도덕성	* 7	* 7	*** 9	* 7	** 8	*** 9
대담성, 소심성	* 7	*** 9	*** 9	** 3	* 7	* 7
민감성, 강인성	***10	** 8	*** 2	** 3	5	* 7
불신감, 신뢰감	* 4	** 3	** 8	***10	* 7	*** 9
죄책감, 편안감	* 4	* 4	* 7	** 8	* 7	* 4
진보성, 보수성	* 4	* 7	** 8	*** 9	* 7	* 7
자기충족적, 집단의존성	** 3	** 3	*** 9	*** 9	* 7	** 3
강한통제력, 약한통제력	5	* 4	***10	*** 9	** 8	5
불안감, 이완감	** 3	** 3	** 8	** 8	* 7	* 4
사변성, 실제성	*** 9	** 3	5	6	5	** 3
실리성, 순진성	*** 2	* 7	5	6	6	* 4

* 스펠점수: ***1,2,9,10 (아주높은점수), **3,8 (높은점수), *4,7 (다소높은점수)

1) 계란형의 유형

계란형의 유형에서는 온정성, 민감성, 사변성, 순진성 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집단 의존성, 이완감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약한자아강도, 신중성, 강한도덕성, 대담성, 신뢰감, 편안감, 보수성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로서 경향성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계란형 유형의 얼굴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은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낙천적이라 남의 부탁시 거절하지 못하는 부분의 온정성면과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남의 관심과 동정을 바라며 비현실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민감성면, 그리고 상상적이고 공상적이며, 세상물정에 어두운 성격의 사변성면과, 감상적이고 온정

적이며, 분별이 없고, 뭘 모르는 성격의 순진성면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냉정하지 못하고, 비판적이지 못하며, 강인하지 못하고, 자기주장이 없으며, 현실적이지 못하고 약삭빠르지 못한 성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현우(1994)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사교적이면서 우유부단하고, 감상적이며, 공상적이기도 하고, 순진한면도 있다. 투지가 강하지 못한 경향을 보이지만 대체로 머리는 좋고 감각도 뛰어나 예술이나 학문분야에 소질을 보인다는 점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다.(정현우, 1994.).

2) 원형의 유형

원형의 유형에서는 온정성, 복종성, 정열적, 대담성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약한자아강도, 민감성, 신뢰감, 집단의존성, 이완감, 실제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편안감, 진보성, 약한통제력, 실리성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로서 경향성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원형의 유형의 얼굴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은 다정다감하고 사교적이며 사회적응성이 높은 부분의 온정성면과, 의존적이고 동조적이며, 복종적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의 복종적면, 그리고 쾌활하면서 말이 많고, 적극적이면서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솔직하면서 호의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면서 신중하지 못한 부분의 정열적면과, 모험적이면서, 배짱이 있고, 우호적이면서 영웅적이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낮 두꺼운 부분의 대담성면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엄격하거나 정확하지 못하며, 비판적이지 못하고, 냉정하지도 못하다. 또한 자기주장이 약하고, 권위적이지 못하며, 공격적이지 못하고, 독립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침착하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향이 있으며, 억제하는 힘이 부족하고, 우월감에 곧잘 빠지기도 하는 성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일주(1996), 정현우(1991), 마의천(1994), 김성현(1995)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명랑하고 사교성이 있으며 노는 것을 좋아하고, 비교적 온후한 성격이며, 우유부단하고 의타심이 강하며 계획성이 다소 부족하다. (박일주, 1996.). 성격은 온화하고 밝으며 마찰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이면서 쾌활한 교재가이며 낙천적이지만 한가지 일에 몰수하지 않는 타입이다.(정현우, 1991.) 주위 사람

들과 사이가 좋고, 교재가 넓으며,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시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사교에 능하고 정을 중요시 한다. (마의천, 1994.) 교재가 넓고, 쾌활하며 남을 의심하지 않고 협조심이 좋으며 원만하여 적이없고, 가정적이고 애정이 많다는 점 등에서 일치로 보이고 있다.(김성현, 1995.)

3) 각형의 유형

각형의 유형에서는 강한자아강도, 지배성, 강한도덕성, 대담성, 강인성, 자기충족적, 강한통제력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냉정성, 불신감, 진보성, 불안감에서는 높은점수를 보였고, 정열적, 죄책감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로서 경향성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각형의 유형의 얼굴형태를 갖고있는 사람의 성격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있으며, 보다 성숙하고 침착하며,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줄 아는 강한자아강도면과, 자기주장이 강하고,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부분도 있으며, 반항적 이기도 하고 직선적이며 독단적 행동도 곧잘하는 지배성면, 그리고 양심적이면서 신사적이고,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하며 다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부분의 강한 도덕성면과, 배짱이 두둑하고 모험적인 대담성면, 또한 정서적으로 둔감하고, 고집이 세며, 남성적인 부분의 강인성면과, 자기중심적이며 남의 도움이나 지지를 원치 않는 부분의 자기충족적면,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철두철미 하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의 강한 통제력면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부드럽지 못하고 조심스럽지도 못하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억제능력이 부족하고, 다소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며, 남의 결정에 잘 동조하지 않는다. 반면에, 의지가 강하며 불안에 둔감하고, 자기 갈등이나 감정에 영향을 적게 받는 성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윤명중(1991), 백준기(1984), 정진호(1996)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윤명중(1991)은 투지가 강하고 남성적인 기백이 넘치고, 어려운 여건도 극복을 잘하여 배짱이 두둑하고 모험을 즐기는 유형이라고 하였다. 정진호(1996)는 프라이드가 높고 용기가 있어서 투쟁심이 넘치며 자기 주장이 강하나 협조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 또한 적극적이고 인내력도 강하지만 표현력이 없어 사교성이 부족한

면을 보인다. 그러나 책임감과 의지가 강해 목표 완수하는 끈기있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일치점을 보인다.

4) 역삼각형의 유형

역삼각형인 유형에서는 냉정성, 약한자아강도, 불신감, 진보성, 자기충족적, 강한통제력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지배성, 소심성, 강인성, 죄책감, 불안감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강한도덕성은 다소 높은 점수로서 경향성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역삼각형 유형의 얼굴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은, 비교적 냉정하고 사교적이지 못하며 비판적이면서 무심한 면이 있고, 자기 본위적이면서 엄격하고, 정확함을 선호하는 부분의 냉정성면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며, 근심걱정이 많아 살이 찌지 않으며,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화를 잘내는 부분의 약한자아강도면과, 의심이 많고, 독단적이며 고집도 세고, 흥분도 잘하는 부분의 불신감면, 그리고, 실험적이면서 분석적이고 반항적이며, 전통을 무시하는 경향의 진보성면, 자기중심적이면서 남의 도움이나 지지를 원치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의 자기충족적인면, 또한 자존심이 강하고 날카로우며,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강한 통제력면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친절하지 못하고 낙천적이지 못하며 어려운 난관에 불안을 느끼며 남을 잘 믿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으며 관대하지 못한 편이다. 또한 보수적이지 못하며 참여적이지 못하고, 나서기를 꺼려하는 성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천권(1996), 마의천(1994)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천권(1996)은 감수성이 예민해 신경질적이면서도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지식욕이 왕성하여 이론적 사고력이 좋으며, 자존심이 강하고 날카로우며, 자기중심적인 타입이라 하였고 마의천(1994)은 신경이 예리하고 지혜가 풍부하며, 번잡한 것을 싫어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유형이며, 틀에 박힌 형식이나 규칙, 순서를 존중하며, 체계적으로 일처리하는 것을 좋아하며 매사에 용의주도한 성격으로 파악하였다.

5) 사다리꼴형의 유형

사다리꼴형의 유형에서는 강한자아강도, 복종성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냉정성, 강한도덕성, 강한 통제력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불신감, 죄책감, 진보성, 불안감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로서 경향성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사다리꼴형의 얼굴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어려운 난관에 극복을 잘하고, 보다 침착한 부분의 강한자아강도면과, 보다 동조적이고, 온건하면서 매사에 조심스러운 부분의 복종적면에서 아주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양심적이고 성실하며 도덕적이고 보수적이며 전통적 성향을 보이는 강한 도덕성, 그리고, 감정과 행동을 잘 통제하고 자존심이 강한 편이며 하는일에 허술함을 보이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자적인 부분의 강한통제력면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자기주장이 약하고, 공격적이지 못하며, 또한 권위적이지도 않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매사에 느긋하고 불안을 덜 느끼는 성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현우(1991)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정현우에 의하면 이러한 얼굴유형의 사람은 드물지만, 복상이다하여 운세가 대단히 좋고, 마음도 대범하여 남을 돌보는 마음씨가 있으며 사람을 잘 부리기도 하고 동조할줄도 알며, 감정과 행동을 잘 통제 할 줄 아는 타입이라고 하였다.

6) 오각형의 유형

오각형의 유형에서는 정열적, 강한도덕성, 신뢰성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온정성, 집단의존성, 실제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강한자아강도, 대담성, 민감성, 신뢰감, 편안감, 진보성, 이완감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로서 경향성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오각형 유형의 얼굴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은, 쾌활하면서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하면서도 솔직하고, 호의적이면서도 융통성이 있으나 다소 말도 많고, 신중하지 못한 부분의 정열적면과, 양심적이고, 신사적이며 도덕적이고, 성실하

면서 책임감이 강하며 보수적인 경향의 강한도덕성면과, 남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신뢰성면, 그리고 친절하기도 하고 사교적이며 다소 충동적이기도 한 부분의 온정성면과 현실적이고, 응급사태에 적응능력이 빠르지만, 다소 신중함이 없는 유형의 실제성면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정열적이다 보니 침착하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 또한, 스트레스도 곧잘 받으며, 신중하지 못하고 남의 비난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물정에도 밝은 성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현우(1991)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현우에 의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고, 성실하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지(知), 정(情), 의(意)를 겸비한 사람이랄까? 부드러운 마음씨가 있는 반면에 강한의지로 싸워 이기는 타입이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얼굴 유형별 성격 측정의 결과에 따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계란형의 소유자는 사교적이고 낙천적이며 우유부단한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상상력이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민감하여 간혹 분별력이 없고 비판력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투지가 강하지 못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머리가 좋고, 감각이 뛰어나 예술이나 학문분야에 소질을 보인다.

둘째, 원형의 소유자는 다정다감하고 사교적이라 대인관계가 좋고 적극적이고 솔직하며 다분히 강한 모험심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앞장을 서는 대담성을 보인다. 반면에 자기주장이 약하고 침착하지 못하며 우월감에 빠지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온화하고 밝으며 타인에게 협조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셋째, 각형의 소유자는 침착, 안정되어 있으며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하여 곧잘 독단적이고 직선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지를 기대하지 않으며 자기주장 또한 강하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쉽게 받으며 억제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갈등이나 감정의 영향을 적게 받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넷째, 역삼각형의 소유자는 자기 본위적이면서도 엄격하고 정확함을 선호하고 비판력이 뛰어나다. 또한 남의 도움을 원치 않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자기 통제력이 뛰어나다. 반면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독단적이며 화를 잘내고 타인에게 다소 관대하지 못하지만 형식과 규칙을 존중하며 매사에 용의주도한 면을 보인다.

다섯째, 사다리꼴 형의 소유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양심적이고 성실해서

도덕적이고, 자신의 일에 결함을 보이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자기주장이 약하고 공격적이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이다. 한편 관상학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소유자는 복상이라하여 사람을 잘 부릴줄 알고 타인에게 동조하며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줄 아는 성격을 보인다.

여섯째. 오각형의 소유자는 명랑, 쾌활하며 적극적이고 매사에 정열적이며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타인에게 관대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도덕성이 강한 성격을 보인다. 그러나 정열적이다보니 침착하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않은 부분들을 보이기도 한다.

3. 얼굴 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얼굴 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분석한 결과 (표-5)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온정성, 냉정성에서는 $F(5.342)=1.57$ 에서 $P>0.1684$ 이며, 강한자아강도, 약한자아강도에서는 $F(5.342)=1.84$ 에서 $P>0.1047$ 이며, 지배성, 복종성에서는 $F(5.342)=0.27$ 에서 $P>0.9289$ 이며, 정열적, 신중성에서는 $F(5.342)=1.79$ 에서 $P>0.1141$ 이며, 강한도덕성, 약한도덕성에서는 $F(5.342)=0.46$ 에서 $P>0.8093$ 으로 나타난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5) 얼굴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Source	DF	SS	F-value	Pr>F
온정성, 냉정성				
Model	5	166.35011082	1.57	0.1684
Error	342	7255.99471677		
Total	347	7422.34482759		
	R-Square	0.022412	C.V	9.609895
강한자아강도, 약한자아강도				
Model	5	124.61187668	1.84	0.1047
Error	342	4636.24731873		
Total	347	4760.85919540		
	R-Square	0.026174	C.V	6.671680
지배성, 복종성				
Model	5	19.67476632	0.27	0.9289
Error	342	4967.27925667		
Total	347	4986.95402299		
	R-Square	0.003945	C.V	8.502694
정열적, 신중성				
Model	5	133.35495950	1.79	0.1141
Error	342	5093.55021292		
Total	347	5226.90517241		
	R-Square	0.025513	C.V	8.496245
강한도덕성, 약한도덕성				
Model	5	43.22062151	0.46	0.8093
Error	342	6491.69891872		
Total	347	6534.91954023		
	R-Square	0.006614	C.V	12.00254

(표-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얼굴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분석 결과, 대담성, 소심성에서는 $F(5,342)=2.03$ 에서 $P>0.0740$ 이며, 불신감, 신뢰감에서는 $F(5,342)=1.49$ 에서 $P>0.1927$ 이며, 죄책감, 편안감에서는 $F(5,342)=1.64$ 에서 $P>0.1480$ 이며 진보성, 보수성에서는 $F(5,342)=1.39$ 에서 $P>0.2280$ 으로 나타난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며, 민감성, 강인성에서는 $F(5,342)=2.67$ 에서 $P>0.0221$ 로 나타난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6) 얼굴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Source	DF	SS	F-value	Pr>F
대담성, 소심성				
Model	5	177.26515007	2.03	0.0740
Error	342	5974.65439016		
Total	347	6151.92954023		
	R-Square	0.028815	C.V	8.216753
민감성, 강인성				
Model	5	285.88600951	2.67	0.0221
Error	342	7332.51628934		
Total	347	7618.40229885		
	R-Square	0.037526	C.V	13.37673
불신감, 신뢰감				
Model	5	112.51052525	1.49	0.1927
Error	342	5167.65901498		
Total	347	5280.16954023		
	R-Square	0.021308	C.V	6.926807
죄책감, 편안감				
Model	5	228.41555238	1.64	0.1480
Error	342	9508.57295336		
Total	347	9736.98850575		
	R-Square	0.023459	C.V	14.71254
진보성, 보수성				
Model	5	98.74526636	1.39	0.2280
Error	342	4864.65703249		
Total	347	4963.40229885		
	R-Square	0.019895	C.V	9.377528

(표-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얼굴 유형별 성격요인의 차이에 대한 차검증을 위해 다변량분석결과 강한통제력, 약한통제력에서는 $F(5,342)=0.83$ 에서 $P>0.5281$ 이며, 불안감, 이완감에서는 $F(5,342)=1.90$ 에서 $P>0.0933$ 이며, 실리성, 순진성에서는 $F(5,342)=0.99$ 에서 $P>0.4221$ 로 나타난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자기충족적, 집단의존적에서는 $F(5,342)=2.96$ 에서 $P>0.0124$ 이며, 사변성, 실제성에서는 $F(5,342)=2.65$ 에서 $P>0.0229$ 로 나타난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7)얼굴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Source	DF	SS	F-value	Pr>F
자기충족적, 집단의존적				
Model	5	239.75827062	2.96	0.0124
Error	342	5533.50609719		
Total	347	5773.26436782		
	R-Square	0.041529	C.V	9.821788
강한통제력, 약한통제력				
Model	5	83.43294769	0.83	0.5281
Error	342	6865.49521323		
Total	347	6948.92816092		
	R-Square	0.012007	C.V	13.43560
불안감, 이완감				
Model	5	224.88920181	1.90	0.0933
Error	342	8085.21137290		
Total	347	8310.10057471		
	R-Square	0.027062	C.V	14.22006
사변성, 실제성				
Model	5	198.51600826	2.65	0.0229
Error	342	5124.55008369		
Total	347	5323.06609195		
	R-Square	0.037294	C.V	13.00147
실리성, 순진성				
Model	5	72.02674353	0.99	0.4221
Error	342	4962.97038291		
Total	347	5034.99712644		
	R-Square	0.014305	C.V	8.4648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얼굴 형태가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검증을 위해 다변량분석한 결과 성격요인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민감성, 강인성 요인과 자기충족적, 집단의존성요인 그리고 사변성, 실제성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성격 요인간의 상관관계

(표-8)은 성격 요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성격요인간의 상관을 보면 정열적, 신중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50(P < .001)$, 정열적, 신중성과 불신감, 신뢰감과의 상관은 $r = .33(P < .001)$, 대담성, 소심성과 불신감, 신뢰감과의 상관은 $r = .30(P < .001)$,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은 $r = .60(P < .001)$, 민감성, 강인성과 사변성, 실제성과의 상관은 $r = .38(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불안감, 이완감과의 상관은 $r = .62(P < .001)$ 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8.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 $P < 0.05$, ** $P < 0.01$, *** $P < 0.001$

5. 얼굴 유형별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본 장에서는 얼굴 유형별로 성격요인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1) 계란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표-9)은 계란형의 성격요인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계란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지배성, 복종성과 정열적, 신중성과의 상관은 $r = .36(P < .01)$, 정열적, 신중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53(P < .001)$, 대담성, 소심성과 불신감, 신뢰감과의 상관은 $r = .44(P < .001)$, 불신감, 신뢰감과 자기 충족적, 집단의존성과의 상관은 $r = .32(P < .01)$,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은 $r = .55(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불안감, 이완감과의 상관은 $r = .48(P < .001)$ 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9. 계란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		-.10	.23	**	**	.14	.07	.13	.01	.00	.14	.22	.11	*	.31	.12	
x2			.06	.11	-.22	.19	-.02	.16	.13	.02	.19	-.24	.12	*	.29	.16	
x3				**	*	*	.11	.13	.13	-.04	.23	.20	*	.26	.09	.16	
x4					*	**	-.15	**	.15	.19	*	*	.17	.04	*	.23	
x5						-.14	.25	-.26	**	.29	.02	.04	***	.05	.12	.02	
x6	x1: 온정성, 냉정성						-.22	***	.44	-.09	.06	.23	.06	.13	.04	*	.24
x7	x2: 강한자아강도, 약한자아강도							*	-.24	**	.35	.06	-.21	.10	**	**	.09
x8	x3: 지배성, 복종성								-.04	.03	.32	.07	.20	*	.26	.19	
x9	x4: 정열적, 신중성												***	.48	*	.26	.13
x10	x5: 강한도덕성, 약한도덕성									.09	.00	-.16					
x11	x6: 대담성, 소심성										*	.27	-.04	.12	.00	-.01	
x12	x7: 민감성, 강인성																
x13	x8: 불신감, 신뢰감																
x14	x9: 죄책감, 편안감																
x15	x10: 진보성, 보수성																
	x11: 자기충족적, 집단의존성																
	x12: 강한통제력, 약한통제력																
	x13: 불안감, 이완감																
	x14: 사변성, 실제성																**
	x15: 실리성, 순진성																.30

* $P < 0.05$, ** $P < 0.01$, *** $P < 0.001$

2) 원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표-10)은 원형의 성격요인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원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온정성, 냉정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40(P < .001)$, 대담성, 소심성과 민감성, 강인성과의 상관은 $r = .44(P < .001)$, 대담성, 소심성과 불안감, 신뢰감과의 상관은 $r = .40(P < .01)$,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은 $r = .63(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불안감, 이완감과의 상관은 $r = .66(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사변성, 실제성과의 상관은 $r = .40(P < .001)$ 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10. 원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		** -.36	* .03	.27	-.11	*** .40	* .27	.22	.20	.23	-.17	.05	.07	.18	.30			
x2			-.17	-.25	.20	-.07	-.09	.10	*	-.26	-.12	.20	.20	-.11	-.05	-.12		
x3				.10	-.11	.10	.17	.11	.02	.05	.02	.07	-.13	*	.26	-.02		
x4					-.12	** .37	** .32	** .34	.10	.10	-.07	.07	.15	.23	.14			
x5						-.14	-.12	.02	*	-.28	-.11	** .38	*** .63	-.16	-.06	-.07		
x6							*** .44	** .40	*	.11	.28	-.05	.14	.07	.19	*	.30	
x7	x1: 온정성, 냉정성	x2: 강한자아강도, 약한자아강도	x3: 지배성, 복종성	x4: 정열적, 신중성	x5: 강한도덕성, 약한도덕성	x6: 대담성, 소심성	x7: 민감성, 강인성	x8: 불안감, 신뢰감	x9: 죄책감, 편안감	x10: 진보성, 보수성	x11: 자기충족적, 집단의존성	x12: 강한통제력, 약한통제력	x13: 불안감, 이완감	x14: 사변성, 실제성	x15: 실리성, 순진성			
x8								.16	.22	.04	.03	.19	.17	.27	.07			
x9									.20	.31	-.12	.20	.21	.23	.13			
x10										** .35	-.17	** -.31	*** .66	*** .40	.11			
x11												*	.27	-.02	.00	.03		
x12																		
x13																		
x14																		
x15																		

* $P < 0.05$, ** $P < 0.01$, *** $P < 0.001$

3) 각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표-11)는 각형의 성격요인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각형과 성격요인간 상관관계에서 온정성, 냉정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43(P < .001)$, 정열적, 신중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44(P < .001)$, 자아강도와 죄책감, 편안감과의 상관은 $r = .40(P < .01)$,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은 $r = .71(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불안감, 이완감과의 상관은 $r = .73(P < .001)$, 통제력과 실리성, 순진성과의 상관은 $r = .41(P < .01)$ 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11. 각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				*		***						*	*		
x2	.15			.33	.23	.43	.15	-.21	-.19	.23	-.24	.32	-.30	-.13	.23
x3		-.07		.16	.38	.16	-.14	.04	-.25	-.05	.40	.06	-.21	.20	.18
x4			*	.32	.25	.13	.07	.14	-.09	.08	.09	.36	-.09	-.04	.11
x5				*		***		*		**					
x6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7					.26	.25	-.03	-.42	.34	.29	.71	-.30	.13	.35	
x8								**	**	*	***	*	**	**	
x9							.19	.02	-.40	.08	.15	.25	-.36	.23	.34
x10								**	**	*				*	
x11								-.34	-.08	.29	-.15	.24	.16	.27	.18
x12									.13	-.04	.14	-.11	-.02	.27	.13
x13										**	***	***			
x14										-.05	-.34	-.44	.73	.08	-.18
x15										*	*	*	*	*	*
x1										-.29	.27	.04	.08	.04	
x2											*	*	*	*	*
x3											.29	-.31	.04	.30	
x4												**	**	**	**
x5												-.40	.02	.41	
x6														.14	-.24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 P < 0.05, ** P < 0.01, *** P < 0.001

4) 역삼각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표-12)은 역삼각형의 성격요인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역삼각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 관계에서 정열적, 신중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53(P < .001)$ 로서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은 $r = .60(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불안감, 이완감과의 상관은 $r = .64(P < .001)$, 지배성, 복종성과 사변성, 실제성과의 상관은 $r = .41(P < .001)$, 민감성, 강인성과 사변성, 실제성과의 상관은 $r = .45(P < .001)$, 자기충족적, 집단의존성과 사변성, 실제성과의 상관은 $r = .40(P < .001)$ 로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12. 역삼각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		*		*		**						*			*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 P < 0.05, ** P < 0.01, *** P < 0.001

5) 사다리꼴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표-13)은 사다리꼴형의 성격요인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사다리꼴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지배성, 복종성과 도덕성과의 상관은 $r = .52(P < .001)$, 정열적, 신중성과 불신감, 신뢰감과의 상관은 $r = .64(P < .001)$, 대담성, 소심성과 불신감, 신뢰감과의 상관은 $r = .53(P < .001)$,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은 $r = .68(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불안감, 이완감과의 상관은 $r = .69(P < .001)$, 민감성, 강인성과 사변성, 실제성과의 상관은 $r = .59(P < .001)$ 로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표-13. 사다리꼴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		.07	.19	.27	.13	.33	.07	.26	-.21	-.15	.12	.02	-.14	.04	.28
x2			.19	.15	.11	.33	.01	.26	.11	.09	.16	.18	.10	.27	.17
x3				.22	.52	.27	-.02	.50	-.11	.01	-.25	*	-.08	.35	.14
x4					.15	.48	.26	.64	.15	.12	.31	-.09	.04	.26	-.06
x5						.33	.01	.29	-.14	-.01	-.16	.68	-.00	.23	.34
x6							.23	.53	-.16	-.04	.05	.22	-.00	.20	.28
x7	x1: 온정성, 냉정성							.20	.33	.05	-.03	-.04	.26	.59	.10
x8	x2: 강한자아강도, 약한자아강도								.09	.19	.20	.14	.06	.23	.18
x9	x3: 지배성, 복종성									.02	.03	-.27	.69	.28	.02
x10	x4: 정열적, 신중성											.28	.11	-.02	.24
x11	x5: 강한도덕성, 약한도덕성														
x12	x6: 대담성, 소심성														
x13	x7: 민감성, 강인성														
x14	x8: 불신감, 신뢰감														
x15	x9: 죄책감, 편안감														
	x10: 진보성, 보수성														
	x11: 자기충족적, 집단의존성														
	x12: 강한통제력, 약한통제력														
	x13: 불안감, 이완감														
	x14: 사변성, 실제성														
	x15: 실리성, 순진성														

* $P < 0.05$, ** $P < 0.01$, *** $P < 0.001$

6) 오각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표-14)는 오각형의 성격요인간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오각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지배성, 복종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39(P < .01)$, 정열적, 신중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42(P < .01)$, 대담성, 소심성과 불신감, 신뢰감과의 상관은 $r = .37(P < .01)$,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은 $r = .58(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불안감, 이완감과의 상관은 $r = .57(P < .001)$, 민감성, 강인성과 사변성, 실제성과의 상관은 $r = .47(P < .001)$ 로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14. 오각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		.14	-.01	.01	.01	.18	-.01	.08	-.03	-.23	.01	-.01	.17	-.05	.16
x2			-.10	.28	.15	.17	.03	.31	.08	-.10	.26	.14	.12	.03	.24
x3				.14	.34	.39	.14	.25	-.07	.08	-.01	.16	-.11	.31	.25
x4					.16	.42	-.07	.31	-.18	-.16	.18	.05	-.00	.06	.27
x5						.23	-.12	.35	-.42	.09	.20	.58	-.22	.18	.31
x6							.05	.37	-.32	-.33	-.00	.24	-.32	.26	.31
x7	x1: 온정성, 냉정성	x2: 강한자아강도, 약한자아강도						.05	.20	.18	-.02	-.11	.16	.47	.09
x8	x3: 지배성, 복종성	x4: 정열적, 신중성							.21	.25	.03	.14	.23	.28	.26
x9	x5: 강한도덕성, 약한도덕성	x6: 대담성, 소심성											.57	.14	-.17
x10	x7: 민감성, 강인성	x8: 불신감, 신뢰감								.22	-.07	-.26	.33	.13	-.14
x11	x9: 죄책감, 편안감	x10: 진보성, 보수성											.19	.04	.26
x12	x11: 자기충족적, 집단 의존성	x12: 강한통제력, 약한통제력												.21	.05
x13	x13: 불안감, 이완감	x14: 사변성, 실제성													.18
x14	x15: 실리성, 순진성														
x15															

* $P < 0.05$, ** $P < 0.01$, *** $P < 0.001$

얼굴 유형별 성격 요인간 상관관계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란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지배성과 정열적과의 상관, 불신감과 자기 충족적과의 상관은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정열적과 대담성과의 상관, 대담성과 불신감과의 상관,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 죄책감과 불안감과의 상관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원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대담성과 불신감과의 상관은 다소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온정성과 대담성과의 상관, 대담성과 민감성 과의 상관,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 죄책감과 불안감과의 상관, 죄책감과 사변성과의 상관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각형과 성격요인간 상관관계에서 자아강도와 죄책감과의 상관은 다소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온정성과 대담성과의 상관, 정열적과 대담성과의 상관,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 죄책감과 불안감과의 상관, 통제력과 실리성과의 상관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역삼각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정열적과 대담성과의 상관,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 죄책감과 불안감과의 상관, 지배성과 사변성과의 상관, 민감성과 사변성과의 상관, 자기충족적과 사변성과의 상관에서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다섯째, 사다리꼴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지배성과 도덕성과의 상관, 정열적과 불신감과의 상관, 대담성과 불신감과의 상관,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 죄책감과 불안감과의 상관, 민감성과 사변성과의 상관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섯째, 오각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지배성과 대담성과의 상관, 정열적과 대담성과의 상관, 대담성과 불신감과의 상관은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 죄책감과 불안감과의 상관, 민감성과 사변성과의 상관에서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V. 結論 및 提言

1. 結論

본 연구의 목적은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녀구분없이 348명으로 나이는 19세부터 23세까지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측정도구는 Cattell의 16PF 성격요인 질문지로 15개 요인 150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절차는 얼굴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3차원 동작분석기인 비디오를 이용하여 촬영된 얼굴을 화상에 비추어 각각의 얼굴에 대해 각 포인트마다 디지털화(Digitization)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질문지 점수에 의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얼굴에 대한 평균간의 차검증을 위해 다변량분석(MANOVA)을 하였으며 얼굴유형에 따른 성격 분류기준과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모든 자료처리를 위해 사용된 통계방법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사용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에 입각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얼굴 형태에 따른 성격분류가 가능한가에 대한 결과는 Cattell의 16PF 성격 측정도구의 스텐점수에 의해 분석한 결과 계란형, 원형, 각형, 역삼각형, 사다리꼴형, 오각형의 6가지 얼굴 형태에 따른 성격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얼굴 형태가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따른 결과는 얼굴유형별 성격요인의 차검증을 통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격요인들간의 관계에 있어 일부요인을 제외하고는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요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서양의 성격검사지에 의한 성격분류가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따른 결과는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얼굴 유형별 성격요인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서양의 성격분류가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적용이 가능한 결과를 보였다.

4) 서양의 성격 분석 도구에 의한 성격분류를 통해 검증한 결과 얼굴 형태에 따른 성격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양철학에 기인한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提 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피검자의 대상을 남녀 구분없이 무작위 348명을 표집 대상으로 삼았으나 사실 얼굴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어느 특정유형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중간 유형의 얼굴 형태들을 검사자의 임의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적정수에 해당하는 정확한 얼굴 유형별 피검자를 대상으로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며, 정확한 얼굴유형 구분이 되지 않는 요인으로 인해 연구결과에 다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 강태호(1992), 관상보는법, 동양서적, P.27
- 고영희외 공저(1990), 심리학, 서울, 양서원, P.200
- 고홍환(1987), 체육의 측정평가, 연세대학교 출판부, PP.485~490
- 고홍환,김기웅,장국진(1994), 운동행동의 심리학, 보경문화사, PP. 267~274
- 김근영(1992), 운동심리학입문, 보경문화사.
- 김성현(1995), 한국인의 얼굴 한국인의 운명, 동학사, PP.95~100
- 류정무,이강현(1993), 스포츠 심리학, 민음사, PP.223~249
- 마의천(1994), 관상과 운명, 도서출판 밀알, PP.18~68
- 민영순, 『교육심리학 신강』 서울 : 문음사, PP.318
- 朴雅晴, 『성격 심리학』,교육과학사, PP.61~71
- 박일주(1996), 관상을 알면 팔자가 보인다, 좋은글, PP.52~57
- 박정근(1995), 스포츠 심리학, 대한미디어, PP.65~77
- 백준기(1984), 전통관상법, 송원문화사, PP40~42
- 염태호., 김정규(1990), 성격요인검사: 실시요강과 해석방법,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윤명중(1991), 얼굴의 미학, 동학사, PP.21~27
-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1993), 성격진단검사, 중앙적성연구소.
- 李鉉洙, 성격 및 개인차의 심리학, 서울, 禘成文化社, P.151
- 임변장(1980), 남자고등학교 운동선수의 퍼스넬리티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정량은(1976), 『심리학 통론』, 서울 : 법문사, P.141
- 정진호(1996), 얼굴은 선택된 운명이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 도서출판 청송,
PP.33~38
- 鄭鉉祐(1991), 인상 경영학, 명문당, PP.11~35
- 정현우(1994), 알기 쉽게 볼수 있는 인상학, 자유시대사, PP.43~44
- 崔鎔想, 『초등교사의 성격특성과 학급경영 활동과의 관계』 한국교원 대학교대학원.
- 최천권(1996), 관상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 도서출판 장백산, 한국체육학회지 제3호.

Rogers, C.R, Client - centred therapy :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Boston : Houghton, 1951.

G.W著(1968), 今田惡監譯 : 『人格心理學 (上.下.)』, 誠信書.

E.R. Hilgard Introduction to psychology, 3rd. ed., N.Y. Harcourt Brace. 1962. 학생 생활연구소 제9집. 경상대. 1983.



<Abstract>

A Study on the Personality Classification According to Figure Configuration

Koh, Chung-Hwan

Physical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Im, Sang-Yong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undertaken to classify the personality figure configuration. The subjects participated for this consisted of 348 samples randomly attending university.

The measurements used for this consisted of two categories including Cattell's 16PF questionair made 150 questions of 15 factors and photography for digitization 5 point of figure.

The statistical result were standard deviation & mean of sten score, pearson correlation for signficience difference of peronality classification by figure configurations and MANONA analysis to investigate signifient difference by figure configurations.

The conclusions obtained were as follow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1. The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of Human being by figure configuration could be analysed by six figure configuration composing egg, round, square, inverse triangular, trapezoid and pentagonal-figures.

2. The validation Test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instrument for personality classification turned out not to be nearly difference but some factors.

3. The application of western's to oriental instrument(physiognomy) of personality classification was shown to be agreement due to analysis result of pearson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factors by figure classification.

4. Therefore, being consideration above the results. We could conclude that application of oriental philosophic classification method of personality to western scientific method was rational, objective classification method.



〈 부 록 〉



***** 응 답 요 령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반반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 | |
|---|-------------------|
| 1.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어려운 일에 부딪쳐도 좀처럼 좌절 하지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남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한 비판을 되도록 삼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쾌활하고 떠들썩한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사람은 좋은데 좀 덜렁거린다는 평을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모임에 나가면 비교적 사람앞에 나서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건축설계보다 소설쓰는 일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겉치레만 하고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웬지 모르게 막연한 위기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우리사회는 혁신과 개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들이 더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남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나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남과 얘기할 때 생각을 일단 정리하고 나서 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하고 걱정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나는 어디가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잘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월급 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16. 외딴 곳보다는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에 살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17. 가끔 이생각 저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 ① - ② - ③ - ④ - ⑤
18. 상대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따끔하게 책망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9. 나는 자주 놀러 다니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20.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21.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당황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22. 길 가다가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 좀 구경하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23. 어떤 일의 책임을 맡은 이상 내 주장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둔다. ① - ② - ③ - ④ - ⑤
24.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면 매우 실의에 빠진다. ① - ② - ③ - ④ - ⑤
25. 정부의 발표는 거의 믿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26.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27. 방은 항상 깔끔히 정리하고 무엇이든 곧 찾아낼수 있게 해 둔다. ① - ② - ③ - ④ - ⑤
28. 항상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29. 연극이나 음악, 오페라 등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일이 재미있을 것 같다. ① - ② - ③ - ④ - ⑤
30. 거칠고 반항적인 사람보다 예의바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1.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이 마음에 든다. ① - ② - ③ - ④ - ⑤
32. 내가 계획했던 목표는 항상 달성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3. 남에 영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단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34. 다른 사람들에 비해 친구가 적은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35. 어지럽게 물건들이 널려 있는 방을 보면 불쾌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36.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① - ② - ③ - ④ - ⑤
37. 취미생활로서는 뭘 만들기보다는 음악감상이 더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38. 잘못 보도한 잡지 기사를 읽어도 별로 흥분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39. 윗사람이 부르면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① - ② - ③ - ④ - ⑤
40. 부모와 의견이 다를 때 반드시 부모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41. 남이 나를 유별나게 보거나 이상하게 여겨도 상관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42. 남들이 인정할 정도로 매사를 잘 처리하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43. 조금이라도 일이 뜻대로 안되면 초조하고 속이 탄다. ① - ② - ③ - ④ - ⑤
44.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재미있을 것 같다. ① - ② - ③ - ④ - ⑤
45.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46. 직장이나 모임에서 꼴 잘 간부로 뽑히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47.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거나 섭섭하게 대할 경우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48. 나에게는 확실히 남들보다 뛰어난 면도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49.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많아야 신이 난다. ① - ② - ③ - ④ - ⑤
50.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항상 그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생각해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51.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주눅이 든다. ① - ② - ③ - ④ - ⑤
52. 역사실록이나 전쟁사 같은 책보다 차라리 순수 문예작품이 마음에 든다. ① - ② - ③ - ④ - ⑤
53. 무슨 일이든 강요하면 반발심이 생긴다. ① - ② - ③ - ④ - ⑤

54. 남이 욕을 하거나 미워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55. 고정급료를 받는 일보다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일을 하고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56. 무슨 일을 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기보다 차라리 혼자서 하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57.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세심한 주의를 다해야만 안심이 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58. 다른 사람에게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59. 평범한 사람들은 깊이가 없어서 싫다. ① - ② - ③ - ④ - ⑤
60. 예절같은 것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61. 초등학교 선생님보다는 등대지기가 더 재미있을 것 같다. ① - ② - ③ - ④ - ⑤
62. 남들이 이유없이 나를 무시하거나 피하는 일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63. 나는 예의바르고 조용한 성격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64. 축제나 파티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65. 나는 무슨 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 ① - ② - ③ - ④ - ⑤
66. 모임에서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듣는 쪽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67. 같은 조건이라면 엔지니어 직종보다 청소년 진로 상담을 하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68. 제 주장만 하는 사람을 보면 미움을 사더라도 충고해 준다. ① - ② - ③ - ④ - ⑤
69. 상을 받거나 칭찬을 들으면 당황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70.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나 전통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71. 내가 하는 일에는 남의 조언이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72.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73.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74. 자주 어떤 생각에 몰두하여 현실을 잊어버린다. ① - ② - ③ - ④ - ⑤
75. 여행을 간다면 혼자 계획하지 않고 남의 조언을 받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76. 남의 생일이나 명절때 선물사러 다니는 일은 귀찮게 느껴진다. ① - ② - ③ - ④ - ⑤
77.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78.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말을 해준다. ① - ② - ③ - ④ - ⑤
79. 자유시간에는 친구들과 농담하며 즐겁게 보낸다. ① - ② - ③ - ④ - ⑤
80. 치밀함과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일을 좋아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81. 어떤 모임에도 쉽게 잘 어울리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82. 감상적인 음악보다 신나는 음악이 더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83.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가끔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84. 잘못된 일이 없는데도 죄를 진듯한 느낌이 들곤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85. 토론에서는 인간적인 화해보다는 옳은 의견을 가려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86. 함께 공부하는 것보다 참고서를 보며 혼자 하는 것이 낫다. ① - ② - ③ - ④ - ⑤
87. 무슨 일이든 하기전에 항상 신중히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88.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89.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90. 대인관계에서 서투르며 약삭바르지 못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91. 같은 조건이라면 연구직보다 판매직을 택하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92. 두고두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일도 막상 시작하려면 자신이 없어진다. ① - ② - ③ - ④ - ⑤

93. 성공할 확률이 적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밀고 나갈 때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94. 낯곳은 장난을 좋아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95. 일을 능률적으로 잘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96.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① - ② - ③ - ④ - ⑤
97. 좋은 집 한채보다는 좋은 시 한편이 더 가치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98. 남들이 내 말을 흘려 들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둔다. ① - ② - ③ - ④ - ⑤
99.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별로 이루어놓은 것이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0. 옛 관습에 구애받지 말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1.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혼자 하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2. 일단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3. 자주 머리가 아프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4. 사상이나 예술에 관심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5. 남이 노리는 것을 쉽게 알아챈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6. 장부정리나 기록을 하는 일보다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 더 좋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7. 일할 때 주위에서 어지간히 소란해도 잘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8.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받으러 오는 일을 하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9. 떠들썩한 파티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취미생활이나 하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110. 무슨 일이나 완벽하게 하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11. 나는 외향적이고 사람을 잘 사귀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12. 과학보다는 문학을 더 좋아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13.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덮어주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14. 쉽게 우울해지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15.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 사리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116.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주위 사람들과 의논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17.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18. 뭔지 모르게 늘 불안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119.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0. 대인관계에서 예의를 잘 지킨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1. 모임에 나가느니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2. 어수선한 꿈 때문에 깊이 잠을 못 잔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3. 무슨 일이나 반드시 내 의견을 반영시키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4. 다소 위험해도 다양하고 활동적인 일을 좋아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5. 한가지 일에 집념이 강한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6. 일할 때 다른 사람이 둘러서서 구경하면 거북스럽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7.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8. 매사에 악착같이 노력하지는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9. 하찮은 일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기도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0. 전통을 지키기보다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1. 혼자서 결정하기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편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2.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일을 하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3. 쉽게 초조해하거나 안달하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4. 나는 다소 비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5. 대인관계에서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6. 남들과 타협하기를 싫어하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7. 남들 앞에서 실수한 일이 있어도 쉽게 잊을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8. 나는 고집이 있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9. 나는 농담을 잘 하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0. 나는 매사에 빈틈이 없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1. 나는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2. 공상이나 상상을 즐기는 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3. 내 자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4.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주 후회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5. 반드시 자녀를 낳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6.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7.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일은 별로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8. 몸이 떨리고 늘 긴장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9. 신앙과 종교에 관심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150. 계산에 밝은 사람은 꺼려진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성격요인검사 답안지

※ 검사지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정도를 해당 번호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전혀아니다 : 1점
그렇다 : 4점

아니다 : 2점
아주그렇다 : 5점

반반이다 : 3점

1	16	31	46	61	76	91	106	121	136
2	17	32	47	62	77	92	107	122	137
3	18	33	48	63	78	93	108	123	138
4	19	34	49	64	79	94	109	124	139
5	20	35	50	65	80	95	110	125	140
6	21	36	51	66	81	96	111	126	141
7	22	37	52	67	82	97	112	127	142
8	23	38	53	68	83	98	113	128	143
9	24	39	54	69	84	99	114	129	144
10	25	40	55	70	85	100	115	130	145
11	26	41	56	71	86	101	116	131	146
12	27	42	57	72	87	102	117	132	147
13	28	43	58	73	88	103	118	133	148
14	29	44	59	74	89	104	119	134	149
15	30	45	60	75	90	105	120	135	150

■ 검사결과와 해석

요인명	명칭 : 해석 가능한 인지, 정서, 행동적 특성
▶ A 요인	온정성: 다정한, 사교적, 낙천적, 친절함, 참여적 냉정성: 냉정한, 비사교적, 비판적, 무심함, 초연함
▶ C 요인	강한자아강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숙한, 침착한, 변함없는 약한자아강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감정적인, 변덕스런
▶ E 요인	지배성: 주장적, 공격적, 권위적, 경쟁적, 완고함 복종성: 복종적, 의존적, 추종적, 동조적, 온건함
▶ F 요인	정열적: 정열적, 말많은, 적극적, 솔직한, 호의적 신중성: 신중한 말없는, 소극적, 감추는, 실리적
▶ G 요인	강한도덕성: 양심적, 도덕적, 성실함, 참아내는 약한도덕성: 비양심적, 편의적, 경솔함, 변덕스런.
▶ H 요인	대담성: 대담함, 모험적인, 배짱있는, 우호적, 낮두꺼운 소심성: 소심함, 억제하는, 수줍은, 감상적인, 민감함
▶ I 요인	민감성: 유연함, 의존적, 민감함, 여성적, 정서적, 강인성: 강인함, 둔감함, 실제적, 남성적, 고집센
▶ L 요인	불신감: 의심하는, 질투하는, 독단적, 폭군적, 흥분하는 신뢰감: 신뢰하는, 존중하는, 허용적, 관대한, 안정된
▶ O 요인	죄책감: 자책하는, 걱정스런, 우울함, 불안함, 두려운 편안감: 확신하는, 편안함, 쾌활함, 후회없는, 무례함
▶ Q1 요인	진보성: 실험적인, 진보적, 급진적, 자유로운, 분석적인, 반항적인 보수성: 보수적인, 옛사상을 존중하는, 전통을 지키는, 관습적인
▶ Q2 요인	자기충족적: 자기충족적인, 자신의 결정을 좋아하는, 무엇을 할줄아는 집단의존성: 집단의존적, 참여적, 건전한 추종자, 남의 결정에 따르는
▶ Q3 요인	강한통제력: 잘 통제된, 불안을 조절할수 있는, 사회적으로 정확한, 강박적인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는 약한통제력: 자기통제를 잘 못하는, 불안함, 느슨함, 사회적 규율을 무시하는
▶ Q4 요인	불안감: 불안함, 긴장된, 화내기, 쉬운, 좌절된 이완감: 평온함, 이완된, 침착함, 안정됨
▶ M 요인	사변성: 상상적, 공상적, 관념적 실제성: 실제적, 현실적, 행동적
▶ N 요인	실리성: 실리적, 약삭빠른, 재치있는, 타산적, 야심적 순진성: 순진함, 단순함, 자연스런, 분별없는, 뭇모르는